

경실련 분석 광주시장 후보 공약 강·약점

꿈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은 ‘글썸’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광주시장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상당수가 시간과 예산, 방법 등이 미흡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6·2지방선거 광주시장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표’에 따르면 대다수 광주시장 후보들은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으나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수단을 제시하지 못해 실현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공약 실행 방법 미흡으로 추진 과정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외부 의존형의 전략 등으로 자립 경쟁력 약화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졌다.

여기에 포스코 LED사업 광주유지, 기아차 100만대 생산라인 증설 등 10대 핵심공약 중 복지공약은 단 1개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노인복지에 국한돼 취약계층 분배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강운태 후보는 분야별 정책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기존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 사회적 갈등 최소화 등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그는 경제규모를 중상위권으로 도약, 5대 주력산업과 미래 가치 산업의 집중 육성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방 재정의 부담 범위를 넘어서는 공약으로 실현성 약화가 우려되고 복지와 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대안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점도 위험적 요소로 평가됐다.

■광주시장 후보 공약 강·약점

	정용화 (한나라당)	강운태 (민주당)	장원섭 (인도당)	윤난실 (진보신당)	정찬용 (참여당)
강점	지역경제 어려움 반영	분야별 정책 대안 균형있게 제시	사회복지 문제점 잘 이해	강력한 사회복지정책	참여형 시정운영
약점	공약실천수단 미흡	과도한 지방재정 부담	지역경제 장기전락 미흡	과도한 예산 사업공약	일부공약 실현성 의문

※평민당 조흥규 후보는 핵심공약 10개와 분야별 공약 3개만 제시해 분석 못함.

정용화, 지역경제 중장기 비전 제시

강운태, 분야별 대안 균형있는 반영

장원섭·윤난실, 사회복지 확충 눈길

정찬용, 시민참여형 시정운영 돈보여

민주노동당 장원섭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강점으로 평가됐으나 아동수당 지급과 시민은 행 설립 등 지자체 예산에 비해 과도한 사업이 우선 지적됐다. 여기에 지역 경제와 관련된 장기 전략이 미흡

하고, 정부 정책 방향과의 부조화도 갈등 요소로 제기됐다.

진보신당 윤난실 후보는 다양하고 강력한 사회복지정책과 친환경 대중 교통 정책 등은 강점으로 평가됐으나 조선대 시립대 전환 등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약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구상이 전제돼야 하나 도심재개발 정책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

이 없는 점도 약점으로 거론됐다.

국민참여당 정찬용 후보는 시민참여형 시정운영방향과 지역경제 발전과 복지, 안전 분야에 대한 적절한 정책 배분이 강점으로 꼽혔다. 그는 기아차 80만대 증설과 시내 면세점 유치 등을 약속했으나, 이는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 경기 안정 등이 전제조건이어서 실현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과 함께 취약한 예산운영 계획도 위험요인으로 분류됐다.

광주 경실련 관계자는 “후보자들의 공약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선거 당선자는 지역 여건에 맞게 공약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실련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광주시장 후보들로부터 제출받은 공약을 지역 경제, 도시계획, 환경, 교육, 복지, 행정개혁 등 6개 분야로 나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후보별 강·단점을 분석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군인들 부재자 투표

육군 제 31사단 장병들이 27일 오전 사단 내 삼일교회에 마련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남구청장 선거 ‘강운태 역할론’ 쟁점

민주 최영호-무소속 황일봉 후보 설전

6·2 지방선거 광주지역 최대 격전지인 남구청장 선거전에서 ‘민주당 강운태 광주시장 후보’가 쟁점이 되고 있다.

강 후보 자체가 선거쟁점이 되는 것은 광주 남구에서 그의 존재감 때문. 강 후보는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국회의원에게 당선될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하다. 일부에서는 “강운태는 남구에서 신적 존재”라는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다.

사실 민주당 최영호 후보와 무소속 황일봉 후보 모두 강 후보와는 인연이 깊다. 먼저 인연을 맺은 쪽은 황 후보였으나 최 후보는 최근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점이 다르다. 더욱이 황 후보는 지난 총선 이후 강 후보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태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최 후보는 강

후보의 국회의원 보좌관과 대변인을 역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사무소 현수막에 강 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부착했다.

강 후보도 남구에서 최 후보의 선거운동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강 후보는 지원 유세에서 “최 후보는 나와 함께 정치를 한 인물로, 무소속 구청장 후보에게는 표를 쥐서는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황 후보를 견제하기도 했다.

반면, 황 후보는 애초 강 후보와 관계가 복원했다는 점을 강조하다가 여의치 않자 비판적인 입장으로 변했다. 황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강운태 후보가 남구에서 무소속으로 2번이나 당선돼 놓고 민주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뒤 무소속 후보에게 표를 주지 말라고 선동하고 하니

는 것은 남구민을 우롱하는 배신행위”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최 후보가 ‘강운태 의원 대변인 11년’이라고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대변인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황 후보 측은 “남구민들이 총선에서 두 번이나 무소속 후보를 뽑았다는 것은 인물론 위주의 투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번에도 남구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후보 측은 “그동안 강 후보가 황 후보를 지원해줘서 재선거청장을 할 수 있었는데 자신이 잘 나서 한 것처럼 구민에게 얘기하고 있다”며 “강운태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황 후보에 대해 배신감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순군수 선거 ‘툼살롱 접대’ 고발전

지방선거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화순군수 선거에서 ‘툼살롱 접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 고발전이 펼쳐져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무소속 전완준 화순군수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전 후보가 3년여 전에 공무원으로부터 툼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모(51)씨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

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씨가 몇 년 전 술자리를 가지고 선거일 6일 전에 접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 모씨는 “지난 2007년 2월 광주 모 툼살롱에서 전 군수가 공무원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고, 이

공무원이 신용카드로 술값 380만원을 계산한 뒤 이듬해 9월 승진했다”며 전 군수를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김씨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를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선거인수 256만9815명 확정 115세 할머니 최고령

오는 6월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광주·전남 선거인수가 256만9815명으로 확정됐다.

광주시·전남도는 27일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지난 1991년 6월3일 이전 출생한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며,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외국인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거인 수는 지난 5월14일 명부를 작성한 후 열람과 이의신청, 누락자 등재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광주의 경우 선거인수가 106만4913명으로 전체 인구의 74.1%다. 남성이 51만7122명, 여성은 54만7791명이다.

전남은 150만4902명(전체 인구의 78.69%)으로, 남성은 74만593명, 여성은 76만4309명으로 집계됐다.

확정된 선거인에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이 837명, 외국인이 559명이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광주의 경우 40대가 전체 선거인수의 22.88%인 24만37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60대 이상이 45만3533명(30.13%)으로 고령화비율이 가장 높음을 반영했다.

올해 처음으로 투표를 시작한 19세의 선거인수는 광주는 2만675명, 전남은 2만3089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권자 중 최고령자는 광주시 북구 응두동에 거주하는 115세의 최양단 할머니이며, 남자 최고령자는 남구 백운동에 거주하는 101세의 최익진 옹으로 파악됐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르심!

광주바이블칼리지 제3회 영천축제 및 졸업식

광주바이블칼리지에서 사명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 돈독하고 믿음직한 대교단의 인준(예장-개혁총연)
- 단기 과정(대학 → 2년, 대학원 → 1년)
- 전교생 장학 혜택(학비 배우 지원)
- 졸업생 100% 목사안수, 선교사 파송(백임보장)
- 허자목사 안수
- 나이학력 제한없이 수시 입학
- 광주지역 스쿨버스 운행
- 월, 학(주간반, 야간반), 토요일(종일) 휴식과점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TEL 9011 381-1363 0000
TAX 9011 381-1367